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69.07	↑ 코스닥	689.55
	(+52.21)		(+4.13)
↓ 금리 (연이자율)	2.915	↓ 환율 (원/달러)	1398.20
	(-0.026)		(-0.60)

미래 일상 재편 '자율형 IoT 시대' 스마트홈 → 스마트시티 혁신 도약

AI가 그리는 초연결 미래

〈中〉 지능형사물인터넷

2029년 AIoT 시장 3100조 AI·IoT융합, 전영역 재구성 기기 연결 넘어 자율형 진화

2023년이 챗GPT의 해였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의 시대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융합으로 AIoT는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하며 일상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하고 있다.

AIoT 시장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AIoT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600조원에서 2029년 약 3100조원까지 연평균 2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5년까지 전 세계 가정의 절반 이상이 최소 5개 이상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연결을 넘어 '자율형 IoT'로 진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 신한은행 AI브랜치에서 고객이 AI로 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AI 브랜치는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들을 AI 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들이 수행한다. 고객은 입구에서 AI 은행원을 통해 창구를 안내받는다. 계좌나 체크카드 신규, 외화 환전, 제신고 등 업무들을 AI 은행원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뉴스

AIoT는 단순히 기기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형 IoT'로 진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5G·6G,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AIoT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AIoT 기술의 미래는 옛지 A

I와 퀀텀 IoT 같은 차세대 기술에 달려 있다. 옛지 AI는 데이터 처리를 클라우드가 아닌 디바이스 자체에서 수행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해 웰컴,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퀀텀 IoT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연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기술이다. IBM은 이미 양자 암호화 기술을 IoT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해킹 불가능한 IoT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스마트홈, AIoT 혁신의 '최전선'

AIoT 기술의 진화는 스마트홈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스마트홈은 집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가 연결돼 자율 작동하는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주거 환경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조명이나 온도를 제어하던 수준을 넘어, 가정 내 모든 기기를 연결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홈의 선두 주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홈 루틴을 제안한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제: 초현실사회: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시: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의: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의 대응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강연: 김현배 디파인 대표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XR시장 전망 하현석 큐빅 CTO -AI 혁신을 위한 미래 데이터-합성데이터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I센터장(변호사) -AI와 살아가야 하는 시대-활용과 노동시장의 전망



빛 못 갚는 개인사업자 속출... 인터넷은행 대출 건전성 '경고등'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업대출 잔액 41% 급증 고정이자여신비율 올라 연체율도 동반 상승세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린 가운데 빛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기업대출 잔액은 2조 7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조 9246억원)과 비교하면 41% 급증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잔액은 1조 6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5% 늘었다. 케이뱅크는 1조 474억원으로 같은 기간 7% 증가했다.

기업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가계대출은 40조 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21.7조원)과 비교해 87.6% 증가한 수준이다.

인터넷은행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0조 5863억원에서 올해 3분기 56조 3671억원으로 11.3%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지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금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로 넘어가면서 부실비중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수년째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빛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난 탓이다.

카카오뱅크의 고정이자여신금액은 지난해 말 24억원에서 올해 3분기 97억원으로 늘었다. 고

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0.25%에서 0.58%로 크게 상승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총 기업대출 금액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자여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케이뱅크의 고정이자여신금액도 같은 기간 26억원에서 89억원으로 늘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85%로 지난해 말 0.27%와 비교해 3배가량 상승했다.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5%에서 올해 3분기 1.21%로 늘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0.78%에서 1.72%로 상승했다.

연체율은 기업대출에서 1개

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중을 말한다. 통상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장기 연체로 이어지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져 원리금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이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손충당금은 44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7억원(12%) 늘었다. 케이뱅크의 대손충당금도 3246억원으로 같은 기간 8%(257억원) 증가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경영전략

부장(COO)은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대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개인사업자대출"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은 출시 이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고, 상환기간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은 법률상 기업대출 취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빛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전남해상풍력단지 헬기 시찰 "에너지 안보 기반"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허위 답변 논란'에 한때 파행

▲ 민주, 명태군 녹취 추가 공개... "윤한홍을 어떻게 선거판에 비서실장 쓰나"
▲ 군, 장거리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 KADIZ까지 항공기 탐지·추적



▲ 김동연 "이재명 플랜B? 지금 그런 것 논의할 때 아냐"
▲ 한 총리, 오희옥 애국지사 추모... "애국지사 끝까지 최선 다해 모시겠다"